

지켜야 할 현장, 구성중앙교회 이야기

배 중 훈(목사, 구성중앙교회)

원목(院牧)시절

모든 것이 기도 때문이다.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 새벽기도를 하며 가장 먼저 불러주는 곳에 가리라고 기도했다. 얼마 후 뜬금없는 곳에서 연락이 왔다. 병원의 원목실이었다.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곳이었다. 병원에 있는 목사라니... 서울의 큰 교회에서도 부교역자로 불렸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라 속일 수 없어 원목실로 갔다. 전혀 낯설고 처음 접해보는 목회영역이라 부담은 있었지만 새로 배우는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환자를 위로하고 전도하며, 어려운 환자들을 도왔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무료병동을 만들며 의미있는 사역을 해 나갔다.

3년이 흐른 뒤, 또 다시 기도의 시간이 왔다. 병원의 이사장이 경기도 여주에 노인전문병원을 세우기로 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지만, 거기 가서 원목실을 개척하기로 기도하며 결정했다. 여주로 가려고 준비하던 중, 용인의 한 교회에서 청빙이 왔다. 선배 목사님이 나를 후임으로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기도하고 결심한 사역을 좋은 곳이 나왔다고 버릴 수는 없었다. 정중히 거절하고 아무 것도 없는 여주로 갔다. 처음 여는 병원에서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는 직원들과 함께 야간 당직도 서 가며

원목실을 개척하였다. 7년이 지난 후에는 원목실이 자리 잡았고, 사회복지실도 체계를 잡아와서 편안히 사역할 수 있었다.

안정된 후, 내 사역지가 어디인지를 놓고 다시 기도했다. 병원에서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께서 다시 보내실 것인가?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김천의 한 농촌교회 소식이 들려왔다. 싸움이 있고 갈라진 교회, 치리목사마저 머리를 휘젓는 교회였다. 그러나 이 교회로 오는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일의 진행과정 중에 주께서 보내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와서, 안정된 원목실을 바로 정리하였다.

농촌교회로

한 때 교인 60여명에 재정도 넉넉한 교회였다. 시골교회치고는 아주 안정적인 교회였다. 그러나 그 안에 파고든 맘몬이 목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교회를 갈가리 찢어 놨다. 12명의 교인, 재정은 바닥이나 있었다. 그래도 걱정은 없었다. 괜한 자신감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이었다.

성도는 모두 부모님뻘이었다. 50대가 단 한 명에 불과하였다. 교회의 중심인 안수집사님은 이미 70이었다. 목사가 움직여야 설 수 있는 교회였다. 사례비는 1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교회로서는 부담이었지만, 수정하지 않았다. 꼭 사례비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은 아니었다.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도들도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5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단 한 달도 사례비를 받지 못한 적이 없다.

농사를 시작하다.

농촌으로 오려고 할 때,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직접 지을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농사가 시작되었다. 집사님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장로교

목사인 집사님의 큰 아들과 대화 중에 농사지를 것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과수원을 직접 농사를 지어 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왔다. 아무 경험도 없지만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교인들은 걱정이 많았다. 목사가 어떻게 힘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냐고, 반대도 있었다. 그러나 교인들을 설득하였다. 젊으니 할 수 있고, 모르면 배우면서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인들도 조금씩 힘을 모아서 교회농장으로 여겨서 수익을 교회 재정으로 사용하자고 설득하였다. 여전히 걱정은 있었지만, 교인들은 한 번 해보시라고 허락해 주었다.

농사를 배우다.

생전 해본 적도 없는 농사를 시작했다. 그것도 밭농사를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2천 평의 자두, 복숭아 농장이다. 막막했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었다. 마침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전문가과정이 개설되어 전문적으로 배



과수원농사를 하면서 거둔 자두

울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임 목사님과 갈등이 있어 다른 교회로 가셨던 한 가정이 돌아왔는데, 그 집사님이 자두와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셨다. 병원목회시절부터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백성을 도우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농사를 지으며 묵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때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집사님은 농사짓는 목사를 적극 도우셨고, 지금도 든든한 후원자로 계신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를 달랐다. 목사가 농사를 짓는 것을 탐탁

지 않게 생각했다. 아니 정확히는 ‘돈 되는’ 과수원을 자기들이 맡지 못하고 목사가 맡은 것에 대해 기분 나빠했다. 농사에 대해서 물어 보아도 잘 대답해 주지도 않았고, 일하고 있으면 와서 참견하거나 교회에 대해 나쁜 이야기만 하고 갔다. 시골인심은 옛말이다. 오히려 가슴 속 깊은 곳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시골 분들이다. 다른 곳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 마을에는 둘째 분들이 많다. 예전에, 첫째는 공부시키고 둘째는 “농사나 지어라”라고 주저앉힌 결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인심이나 배려보다는, 악착같고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꼴을 못보고 어떻게 해서든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해서 벌어보려는 경향이 보인다.

맺어지는 열매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할 수는 없었다.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새벽종이 울렸지만, 그 종은 농촌을 위한 종이 아니었다. 논을 정비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은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는 높은 분의 경관을 위해서였고, 실제로는 농촌의 많은 젊은이들이 대도시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했다. 새마을운동이 진정으로 농촌을 위한 운동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농촌이 이렇게 피폐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농촌의 마을 분들은 이러한 것을 알아차릴 겨를도 없이 눈앞의 생계를 해결하느라 바빠 살며 지금까지 왔다. 이러한 분들의 눈에 목사의 농사는 맘에 들지 않았다.

어쨌든 1년이 정신없이 지났다. 무엇을 어떻게 해냈는지도 기억나지 않게 쏠살같이 지났다. 첫 해의 수확은 남는 것도 없었지만, 손해도 없었다. 교회에 헌금하고 나니 다음 해 준비를 위한 자금 딱 100만원이 남았다.

그러나 또 다른 수확이 있었다. 마을 분들이 좋아해주건 않건, 마을 분들과의 접촉이 늘었다. 처음에는 탄지를 걸거나, 과거 교회의 나쁜 소문과 성도와 있었던 불화들만을 쏟아 냈다. 그런데 1년간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아서 그런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낀 것은 수확이 다 끝나고 나서였다. 첫해 큰 이익은 없었지만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 와전되어 ‘돈을 많이 했다(벌었다)’로 알려졌다. 그것은 곧 “목사가 농사도 잘 짓는다”라는 뜻이었다. 이것은 좋은 이미지였다. 즉 부지런한 목사가 와서 일도 잘하고 교회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뜻이었다.

당시 우리 지역 부락들 중에 복숭아는 우리 밭 하나였다. 복숭아는 파치(흙이 있는 복숭아)가 많다. 어차피 팔기도 어렵기 때문에 파치복숭아를 나눠드리거나 회관에 가져다 드렸다. 별다른 목적 없이 한 것이지만, 이것이 마을 분들의 마음을 샀다. 왜냐하면 다들 파치도 어떻게 해서든 팔려고 하지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숭아는 재배지도 많지 않아 얻어먹기 힘든 과일이었다. 이러한 작은 활동들이 목사와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었다. 이것은 목회에 큰 힘이 되었다. 곧 목사를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 이제는 마을 잔치나 모임에 가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되었고, 오히려 지금은 복숭아 농사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도움을 구하러 오시곤 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몇 명 안 되는 여전도회가 헌신예배를 드릴 때였다.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을 모시는데 자리가 많이 빌 것을 여전도회원들이 걱정하였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예배니 자리가 비어도 괜찮다고 하였다. 그래도 여전도회원들은 걱정하였고, 이를 마을 분들이 들었다. 헌신예배 당일 마을 분들 네 분이 곱게 차려입고 교회에 오셨다.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도와야지요.” 일종의 두레다. 목사가 마을에 도움을 주었으니 자기들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신 것이다. 이 분들이 계속 교회에 나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감사거리였다.

이후에 크지는 않지만 자리가 채워졌다. 10년 전에 귀촌하신 분이 등록하여 나오셨고, 다시 고향으로 이사 오신 두 가정이 교회에 오셨다. 그리고 마을의 어르신 한 분이 전도되어 나오셨고, 얼마 전 귀촌하신 권사님도 우리 교회가 좋다고 출석하기 시작하셨다.

농사를 4년 지으며 교회의 재정도 점차 늘어났고, 작년에는 그 동안

꾸준히 모여서 헌금하여 할부 없이 교회 자동차를 새것으로 살 수 있었다.

열매의 크고 작음을 논할 수는 없다. 우리는 땀을 흘릴 뿐,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며, 앞으로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만 남았다.

교인 공동체 세우기

우리 교인들은 한 교회를 다니고, 한 마을에서 형님 동생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다. 친족공동체이자 마을공동체에서 함께 살던 분들 중에 일부가 예수를 믿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싸움이 대단하다. 과거에 서로 물고 뜯고 하던 일들이 많아, 살아있는 동안 화해가 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말 한마디에, 조그마한 사건에 서로 싸우는 일들이 가끔씩 벌어진다. 어느 한편을 들 수도 없고, 위로하고 화해하려 해도 사이가 더 벌어져가는 일들이 생기곤 한다.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즉 한 형제 자매와 가족인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역을 통합하여 구역에 배 때마다 한 가정에 모두 모여 예배

드리고, 그 가정의 사연을 듣는다. 물론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 가정의 이야기를 알더라도 한 번 더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아직 서로간의 감정 싸움의 골은 남아

있고 간혹 나타나기도 하지만 서로 많이 자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평생 화해를 못 이룰 수는 있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는 사역이다.

작년에는 늦가을에 교인 모두와 온천에 갔다. 벚꽃놀이하는 간 적이 있어도 온천은 처음이었다. 힘들고 아픈 노인의 몸을 온천에 담그니 모두들 마음까지 녹은 것 같았다. 봄이 오기 전 세 번을 더 가서 마음과 몸을 따뜻이 녹였다. 이것이 교인들이 더 진심을 알아주고,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주일학교

처음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도 없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 초등학생들의 전도가 쉬었다. 현재 11명이다. 농촌지역은 학생들, 특히 중고생이 갈 곳이 없다. 주일에 오면 놀면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후에는 사택에서(교회에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곳이 없다.) 논다. 이때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놀 수 있도록 배려한다. 부모가 기독교인이 아닌 아이들에게 엄격한 신앙지도보다는 자유롭고 재미있는 교회생활이 이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실컷 놀고 오후 예배 후에 아이들과 20분 책읽기와 영어 공부를 한다. 물론 아이들과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다. 한 달에 한번은 토요일에도 모인다. 체험을 가거나 무작정 놀기도 한다.



성탄절 때 새벽송을 들고 있는
교회학교 학생들

앞으로 쉽터 도서관

을 만들 계획이다. 많은 책이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지만, 함께 떠들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다. 농촌의 가장 소외된 계층은 바로 청소년들이다. 중 2인 한 아이는 주말에는 아버지 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오고 싶은 교회도 잘 오지 못한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쌍둥이들은 교회 아니면 놀 곳이 없다. 부모가 이혼하여 혼자 있는 아이, 맞벌이로 인해 부모와 떨어진 아이... 이런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다. 이들이 사랑받고 자라서 다시 이 지역에 성숙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 교육의 일이라 여기며 이들을 섬기고 있다.

도시교회와 함께 하는 사역들

부임해 온 첫 해부터 경기도의 광주성결교회 청년회와 함께 사역했다. 청년들이 여름성경학교를 열어주고, 봉사활동을 했다. 작년의 특별한 사역은 녹슨 대문을 새로 칠하는 일이었다. 동네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는 이제는 도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농촌교회 아이들을 초청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1박 2일로 광주성결교회로 가서 여러 체험과 예배를 진행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한 지역교회를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사역하며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앞으로 지속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광주성결교회의 담임목회자와 담당목회자가 바뀌는 상황이니 올해도 계속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는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세운 한 회사가 우리 아이들을 서울로 초청해줄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준비하고 있다.

강동 은누리교회의 2부 성가대가 여름에 우리 교회로 아웃리치를 와서 농사를 도왔다. 땀을 흘리며 일손을 도왔고, 주일예배를 함께 해주어서 성가대 없는 시골교회에 모처럼 아름다운 성가가 울려 퍼지게 해주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그들에게 서울에서는 맛보기 힘든 자두로 보답했다.

이것이 서로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성가대원들이 성탄절 당일, 먼 이곳까지와서 성탄 칸타타를 선보이며 함께 예배드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동은누리교회 성가대가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교인들과 함께 어울린 모습

보여주는 예배여서 모두가 은혜 속에 예배를 드렸다.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더 의미있는 봉사의 영역, 사역의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 올해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서울에서의 여름성경학교와 더불어 멘토 멘티 스쿨, 워터페스티벌, 목욕탕 함께 가기, 영정사진 찍기 등등을 진행하려 한다. 또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것이라 믿는다.

기도하며 꿈꾸는 것들

내가 배우고 믿고 있는 교회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공동체이다. 농촌교회에서 얼마나 사람을 부르고 세우고 보내겠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자그마한 개교회 한 곳과 한 지역만을 보기 때문이다. 교회의 목회 대상이 그 교회 신자뿐이라고 생각해서 안 될 것이다. 모든 사람과 자연과 그 안의 모든 관계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촌교회를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몸을 쉬고 과일을 따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며 즐길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더불어서, 영적인 쉬을 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그리

스도인들은 교회에 가도 일 뿐이다. 성가대, 교사, 식당봉사 등등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예배 또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이들이 1박이든 2박이든 머물며 육적인 쉼과 더불어서 영적인 쉼을 주고, 다시 새 힘을 얻어 가정과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촌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농사는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아직 유기농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농약을 적게 쓰고 수확 한 달 전부터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초제도 안 쓰지만, 아직 유기농은 아니다. 수없이 달려드는 벌레들의 공격을 어찌 막아야 할지 그 방법을 다 익히지 못하였다. 창조질서를 해하지 않고 좋은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배워야 한다.

교회, 농촌, 목회

반공이데올로기(1950-60년대)와 성장주의(1960-90년대), 유일한 문화유통의 통로로서의 교회(1980-90년대)를 이용하여 교회는 성장하였다(「시민K, 교회를 나가다」 김진호 저. 참조). 그러나 그 부적절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지금 교회는 추락해 가고 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아니다. 교회는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밖을 보지 못한다. 오히려 그 안에서 특권의 고리를 만들어 부패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교회는 팽창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교회가 되었다. 개종을 강요하는 팽창주의는 ‘개독’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많은 영향력있는 지위에 오른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또한 영혼 구원이라는 반쪽짜리 구원론에 빠져있다. 영혼 구원은 옳게 보이지만, 영과 물질을 구분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 즉 영혼 구원을 받으면, 그것도 ‘믿는다’라고 하는 추상적이며 심리적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나 버린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울부짖고 회개기도하면 끝이다. 물질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삶의 영역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그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의 근거이자 목적

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말로는 영혼의 구원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물질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mammon의 욕망에 빠져있는 것이 교회이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가 될 만한 곳이 아니다. 요즘 새로 개척하는 교회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지하와 상가가 아닌 새로 지은 건물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 농촌은 교회가 되는(?) 곳이 아니다. 농촌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을 들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농촌교회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 곳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목회하고 지켜야할 곳이다. 농촌교회는 추락하는 교회의 시대에 그나마 다시 오를 수 있는 목회의 영역이다.

나는 어떤 것이 잘 하는 목회인지를 모른다. 머릿속에 꿈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가는 능력 또한 없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지도 장담 못한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아는 것뿐이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농촌 교회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농사지으며 목회하는 것뿐이다. 앞으로 기도는 하지만 과대망상하지는 않을 것이고, 땀은 흘리지만 열매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뀌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❷